

## 청소년용 공격행동척도의 타당성 검증

장휘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공격행동의 빈도를 측정하는 Orpinas와 Frankowski(2001)의 자기보고형 질문지 공격척도가 한국의 청년초기 청소년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타당한 척도인가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신체·언어적 공격과 분노요인으로 구성된 Orpinas와 Frankowski 척도와 대학생용으로 개발된 Buss와 Perry의 4요인(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분노, 적개심) 공격질문지를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실시하여 두가지 척도의 하위요인들간의 상관은 물론 두 연령집단의 하위요인들에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동시에 중학생들의 공격행동과 학업성적, 자기존중감,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 및 공격억제와의 관계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비록 두 개의 공격척도들은 유사한 척도이기는 하지만, 언어적 공격을 독립된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지 않은 Orpinas와 Frankowski 척도가 한국의 청년초기 청소년들의 공격행동 빈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공격행동척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다섯 개의 관련변인들은 청소년들의 공격행동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으로 밝혀져 Orpinas와 Frankowski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핵심어: 공격행동 · 자기존중감 · 학업성적 · 애착 · 성역할 정체감

공격행동이란 타인을 해치거나 상처를 입히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행동(Coie & Dodge, 1998)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문제행동이다. 한국 청소년 범죄 중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는 유형이 폭력범일 뿐 아니라 많은 10대 청소년들은 폭행당하는 두려움과 폭행하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장휘숙, 1999 참조)는 공격행동이 갖는 문제의

---

\*hsjang@cnu.ac.kr

심각성을 잘 나타내준다. 더욱이 청년기는 발달의 모든 영역에서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서 문제행동에 특별히 취약한 시기이므로 모든 청소년들이 공격행동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나타나는 폭력행동이나 비행의 기초가 되는 공격행동의 수준을 미리 측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적절한 중재를 실시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상아동이나 청소년의 공격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법으로 부모나 교사 혹은 또래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평정방법이나 자기평정방식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Lardon & Jason, 1992; 광금주, 1992; Achenbach, 1991a,b; Dodge, 1980). 이와함께 또래들이 공격적 아동을 지명하는 방식도 간혹 사용되고 있으나(Huesman, Eron, Lefkowitz & Walder, 1984) 자기보고형의 질문지 공격행동척도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증거로서 지금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자기보고형 공격행동척도들은 일탈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죄행동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Tremblay, Pihl, Vitaro, & Dobkin, 1994), 그리고 정신과 환자(Morrison, 1993)나 주의결핍장애를 갖는 아동들(Moffitt & Silva, 1988)과 같이 특별한 전집에서의 공격행동을 측정하려고 할 뿐 일반 청소년들의 공격행동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공격행동에 대한 일반 청소년들의 지각(Achenbach, Bird, Canino, Phares, Gould, & Rubio-Stipec, 1990)이나 공격적 행동의 의도를 평가하는 자기보고형 질문지 검사(Deluty,

1979)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격적 행동에 대한 태도나 신념 혹은 의도를 측정할 뿐 직접적인 공격행동의 빈도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공격성에 관한 개인의 태도나 신념 혹은 의도가 공격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Kolbe, Kann, & Collins, 1993) 폭력 예방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이 공격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공격행동의 빈도를 측정하는 것은 폭력예방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Orpinas & Frankowski, 2001).

더욱이 개인의 공격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의 중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므로(Kupersmidt & Coie, 1990)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보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나 중학생들과 같은 어린 청소년들의 공격행동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중재를 모색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Orpinas와 Frankowski (2001)가 6, 7, 8학년 청소년들의 공격행동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의 공격척도(Aggression scale)가 한국의 청년초기 청소년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려고 한다. 이와함께 원래 대학생용으로 개발된 Buss와 Perry(1992)의 공격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를 함께 실시하여 중학생들에게도 사용가능한 척도인가를 확인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신체적·언어적 공격과 분노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Orpinas와 Frankowski의 공격척도와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분노 그리고 적개심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Buss와 Perry의 공격질문지가 비슷한 하위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 척도의 구체적 질문들이 외현적인

공격행동에 제한되고 또래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는 관계적 공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공격성과 관련된 일관성있는 경향은 공격행동에는 성차가 있다는 것이다. Orpinas와 Frankowski (2001)의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들 (Simons, Paternite, & Shore, 2001; Carlo, Raffaelli, Laible & Meyer, 1999)에서 소년들의 평균 공격점수가 소녀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고 Buss와 Perry (1992) 연구에서도, 비록 분노에서는 성차가 없기는 하지만, 남자 대학생들이 신체적 공격은 물론 언어적 공격과 적개심에서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공격적 행동과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역할 개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화 이론가들에 의하면(Ruble & Martin, 1997), 남성들은 신체적으로 거칠고 공격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부모역할에 노출되는 반면, 여성들은 돌보기와 가까운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는 부모역할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화 기법은 남녀 청소년들의 성역할 개념에 차이를 가져오고 그것이 상이한 수준의 공격행동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어린 청소년들이 어떤 성역할 개념을 지니고 있고 이것이 공격행동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의 성별이나 성역할 외에도 청소년들의 공격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촉진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보호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Dekovic, 1999; Jessor, Bos, Vanderryn, Costa & Turbin, 1995),

개인의 학업성적과 자기존중감 수준은 문제행동과 높은 상관을 갖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낮은 학업수행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공격행동과 비행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Dekovic, 1999; McCord, 1992), 성공적인 학업수행은 문제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Resnick & Burt, 1996). Orpinas와 Frankowski (2001)의 연구에서도 청년초기 청소년들의 평균 공격점수가 높아질수록 학업성적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낮은 자기존중감은 정신건강문제와 폭력행동 및 약물사용과 같은 문제행동의 유의한 예언자였다(Dekovic, 1999; Jessor 등, 1995). 또한 Fling, Smith, Rodriguez, Thornton, Atkins 및 Nixon(1992)과 Simons 등 (2001)도 공격과 자기존중감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기평정은 서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같은 개인적인 특성외에도 적어도 한쪽 부모와의 따뜻하고 지원적인 관계는 공격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Fergusson & Lynskey, 1996). 특히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적 특성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안녕은 물론 우울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장휘숙, 1997a, 1997b; Raja, McGee & Stanton, 1992; Armsden & Greenberg, 1987) 공격행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외재화 문제들과도 연결되어 있다 (Dekovic, 1999). 일반적으로 부모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제한하고 관습적 행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긍정적 유대는 공격적 행동은 물론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증거로서 Allen, Moore, Kupermine, 및 Bell(1998)은 어머

나가 평정한 공격행동과 비행행동이 청소년이 보고한 자기가치, 청소년이 보고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어머니가 보고한 어머니의 통제정도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Simons 등(2001)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공격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기보고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을 뿐아니라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그들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보고나 교사보고와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부모보고와 교사보고에서 높은 공격점수를 나타낸 청소년들은 평균이하의 낮은 부모-청소년 애착점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애착과 공격적 행동과의 관계는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애착관계의 질적 특성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면화된 신념과 기대세트인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기초한다는 Bowlby (1980)의 주장에 기원한다. Bowlby에 의하면,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들은 양육자를 애정적이고 반응적으로 지각하고 자신을 사랑스럽고 가치있는 존재로 지각하는 동시에 신뢰와 긍정적 기대를 기초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Simons 등(2001)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어떤 아동이 양육자와 안정되지 못한 애착관계를 형성했다면,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갖게 될 것이므로 아동은 타인에게 높은 수준의 공격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Orpinas와 Frankowski (2001)의 공격척도가 청년초기 청소년들의 공격행동 빈도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척도인가를 검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Buss와 Perry(1992)의 공격질문지와와의 관계

를 검토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공격행동과 관련변인들(학업성적, 자기존중감, 어머니 및 아버지 에 대한 애착, 공격억제)과의 관계도 함께 연구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Orpinas와 Frankowski의 공격척도와 Buss와 Perry의 공격질문지의 하위요인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중학생과 대학생들은 두가지 공격척도의 하위요인들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3. 공격행동과 관련변인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세가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가지 공격척도의 하위요인들간의 상호상관을 계산함으로써 두가지 척도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공격척도들의 하위요인들에서 나타난 중학생과 대학생들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연령증가에 따른 공격행동의 변화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두가지 공격척도의 하위요인들에서 중학생과 대학생들간에 일관성있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공격행동의 연령에 따른 변화로 해석될 수 있음은 물론 이 연구에서 사용된 공격척도들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청소년들의 공격행동과 관련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차이점증을 실시하는 동시에 추세분석(trend analysis)을 통하여 공격행동과 관련변인들이 직선적 관계를 갖는가 아니면 곡선적 관계를 갖는지도 함께 확인하려고 한다. 만약 다섯 개의 관련변인들이 공격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관련변인들의 수준

에 따라 개인의 공격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은 물론 공격행동과 관련변인들이 유의한 직선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면(공격행동이 증가하면 관련변인들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다섯 개의 관련변인들은 청소년들의 공격행동을 차단하는 보호적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공격척도가 청소년들의 공격행동 빈도를 측정하는 타당한 척도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자

대전시에 소재한 남녀공학 중학교의 1학년 5개 학급의 남녀 학생 196명과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대학생 260명을 표집하였다.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였으므로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분이 부재한 학생과 반응을 누락한 학생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학생들을 제외한 최종분석 대상자는 중학생 171(남학생: 117명, 여학생: 54명)명과 대학생 252(남학생: 137명, 여학생: 115명)명이었다. 남자 중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2.83(SD=0.45)세였고, 여자 중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2.74(SD=0.48)세였으며 대학생들은 각각 19.57(SD=1.88)세와 19.22(SD=1.52)세였다. 중학생들을 위한 검사는 실시의 표준화를 기하기 위해 동일한 선생님에 의해 수업시간에 실시되었고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심리학개론 시간에 담당교수에 의해 실시되었다. 검사실시시간은 중학생들의 경우 약 35-40분,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약 25-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척 도

### 1) 공격척도

#### ① Orpinas와 Frankowski의 공격척도

이 척도는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외현적인 공격적 행동의 빈도를 측정하며 회상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일 동안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과 분노의 두가지 하위척도를 포함하는 이 척도는 0번(0점)부터 6번 혹은 그 이상(6점)까지의 공격행동 빈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공격행동 점수는 0점부터 66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행동을 더 많이 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척도는 적은 수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짧은 시간내에 실시가 가능하고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Orpinas와 Frankowski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로 측정된 전체 점수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7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에서 .80 그리고 대학생에서는 .81이었다.

#### ② Buss와 Perry의 공격질문지

Buss와 Perry(1992)에 의해 개발된 공격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는 29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 질문지로서 신체적 공격(9문항), 언어적 공격(5문항), 분노(6문항) 그리고 적개심(8문항)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이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형 척도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공격적임을 나타낸다. Buss와 Perry에 의하면, 이 척도의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은 공격행동의 도구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반면, 분노와 적개심은 각각 정서적 구성요소와 인지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요인들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Buss와 Perry(1992)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로 계산된 전체 점수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9였고 이 연구의 중학생 집단에서는 .80 그리고 대학생 집단에서는 .83이었다.

### ③ 공격억제척도

한국판 다면적 인성검사(MMPI)의 척도3 히스테리 척도에서 공격억제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공격억제척도로 사용하였다. 7개의 문항을 포함하는 공격억제척도의 각 문항은 그렇다(1점)와 아니다(2점)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을 더 많이 억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 애착척도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원래의 IPPA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변형하여 사용한 Paterson, Field 및 Pryor(1994)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원래의 IPPA는 28개의 부모 문항과 25개의 동년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을 분리해서 측정해야 하므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해 각 25문항씩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도록 구성한 Paterson, Field & Pryor(1994)의 문항 중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형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원래의 IPPA는 신뢰, 의사소통 그리고 소외의 세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인분석결과 요인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하위척도들을 무시하고 전체점수로 계산하였다.

Paterson 등(1994)의 연구에 나타난 Cronbach  $\alpha$ 로 측정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어머니애 대한 애착 및 아버지애 대한 애착 모두 .94였으며 이 연구의 중학생에서 계산된 내적 일관성 계수는 각각 .88과 .89였다.

### 3) 성역할 척도

Bem(1974)이 제작한 BSRI(Bem Sex Role Inventory)를 기초로 정진경(1990)이 한국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양성성 이론에 입각하여 제작한 한국 성역할 검사(KSRI)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60개의 성격특성 문항들을 포함하는 이 검사는 20개의 남성성 문항과 20개의 여성성 문항 그리고 20개의 긍정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긍정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75에서 .91까지 범위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중앙치분리법에 의해 응답자들은 네 개의 집단 즉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모두 높은 양성적 집단, 남성성 점수는 높고 여성성 점수는 낮은 남성적 집단, 여성성 점수는 높고 남성성 점수는 낮은 여성적 집단 그리고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모두 낮은 미분화 집단으로 구분된다.

### 4) 자기존중감 검사

Rosenberg(1965)의 자기존중감 검사가 사용되었다. 전체적 자기존중감의 지표로 사용되는 이 검사는 10개의 문항을 포함하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범위하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에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alpha$ 로 측정

표 1. 두가지 공격척도의 하위요인들간의 상호상관

	구분	Buss와 Perry의 공격질문지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분노	적개심
Orpinas와 Frankowski의 공격척도	중학생				
	신체·언어적 공격	0.42005 ***	0.12368	0.28309 ***	0.23933 **
	분노	0.37333 ***	0.02629	0.45646 ***	0.36245 ***
	대학생				
	신체·언어적 공격	0.31123 ***	0.20416 ***	0.26176 ***	0.26217 ***
	분노	0.27649 ***	0.21596 ***	0.40126 ***	0.27725 ***

\* p<.05 \*\* p<.01 \*\*\* p<.001 이하 동일함.

된 이 검사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0이었다.

5) 학업성적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은 2001년도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활용하였다. 전체 9개(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가정, 영어, 한문, 컴퓨터) 과목에서 얻은 점수를 평균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9개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평균점수는 67.26 (SD=19.15)점이었다.

결 과

Orpinas와 Frankowski의 공격척도와 Buss와 Perry의 공격질문지에 대한 중학생들의 반응은 신체적 공격요인을 포함한 모든 요인들에서 성차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남녀 점수를 합산하여 후속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Buss와 Perry 척도의 신체적 공격요인에서만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었을 뿐(t=2.80, p<.001) 그의 모든 하위요인들에서는 중학생들과 동일하게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1) Orpinas와 Frankowski의 공격척도와 Buss와 Perry의 공격질문지 하위요인들간의 상호상관

두가지 공격척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요인들간의 상호상관을 계산하였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학생들의 경우 Buss와 Perry척도의 언어적 공격요인만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언어적 공격요인까지 포함한 모든 요인들간에 유의한 상호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개의 공격척도가 유사한 척도이기는 하지만, 언어적 공격요인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후속적 분석에서 확인되기는 하겠지만, 대학생들이 언어적 공격을 더 많이 사용하고 중학생들은 언어적 공격보다는 신체적 공격에 더 많이 의존한다면, 중학생과 대학생용 공격행동척도는 구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2) 두가지 공격척도의 하위요인들에서 중학생과 대학생들의 차이비교

표 2. 두가지 공격척도의 하위요인에서 중학생과 대학생들간의 t검증 결과(괄호안은 표준편차)

공격행동척도	공격성 하위요인들	중학생	대학생	t값
Orpinas와 Frankowski의 공격척도	신체적·언어적 공격 분노	1.24(0.99)	0.27(0.49)	11.80***
		1.27(1.26)	0.62(0.80)	6.55***
Buss와 Perry의 공격질문지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분노 적개심	2.40(0.58)	2.18(0.54)	3.93***
		2.75(0.65)	2.89(0.73)	2.01
		2.81(0.68)	2.59(0.71)	3.21***
		3.10(0.70)	2.49(0.64)	9.19***
공격억제척도	공격억제	1.47(0.18)	1.51(0.19)	1.93*

중학생과 대학생들이 나타내는 공격행동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가지 공격척도의 하위요인들과 공격 억제척도의 하위요인들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t검증 결과, 표 2와 같이 하나의 공격요인만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들에서 유의한 연령차이가 나타났다. 즉, Buss와 Perry의 공격질문지의 언어적 공격요인만을 제외하고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중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연령에 따른 이와같은 일관성있는 차이는 연령증가와 함께 공격행동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두가지 공격척도들이 타당하게 구성된 척도들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Buss와 Perry 척도의 언어적 공격요인에서만 중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청년초기 청소년들은 대학생들보다 언어적 공격을 더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표 1의 결과와 종합해볼 때 어린 청소년들의 공격행동척도 속에는 하나의 독립된 요인으로 언어적 공격을 포함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은 Orpinas와 Frankowski의 2요인 공격행동 척도가 언어적 공격을 독립된 하나의 요인으로 설정한 Buss와 Perry의 4요인 척도보다 청년초기 청소년들에게 더 타당한 척도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

### 3) 공격행동과 관련변인들의 관계

Orpinas와 Frankowski 공격척도의 두가지 하위요인들과 중학생들의 학업성적, 자기존중감,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 그리고 공격억제와의 상관을 계산한 결과 표 3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체

표 3. 두가지 공격행동 요인과 관련변인들의 상호상관

구 분	학업성적	자기존중감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	공격억제
신체·언어적 공격	-0.18943 *	-0.14138	-0.24470 ***	-0.22764 **	-0.21169 **
분노	-0.17139 *	-0.44036 ***	-0.26477 ***	-0.21302 **	-0.19839 **



표 4. 관련변인들의 상하집단에 따른 전체공격점수에서의 t검증 결과 (괄호 속은 표준편차)

변인	집단 수준	전체 공격점수	t 값
학업성적	상집단	1.08(0.73)	3.03**
	하집단	1.51(1.07)	
자기 존중감	상집단	1.05(0.76)	3.81***
	하집단	1.59(1.03)	
어머니에 대한 애착	상집단	1.17(0.07)	2.47*
	하집단	1.46(1.04)	
아버지에 대한 애착	상집단	1.09(0.70)	2.75**
	하집단	1.48(1.07)	
공격억제	상집단	1.10(0.73)	2.38*
	하집단	1.43(1.04)	

· 언어적 공격요인과 자기존중감의 관계를 제외하고 공격척도의 두가지 하위요인들과 모든 관련 변인들이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학업성적,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그리고 공격억제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언어적 공격과 분노가 감소하나 신체·언어적 공격요인과 자기존중감간에는 비록, 부적 관계를 보이는 하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또한 전체공격점수와 다섯가지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점수를 상하로 나누고 전체공격점수에서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t 검증 결과, 표 4와 같이 모든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 자기존중감, 어머니에 대한 애착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격억제가 강할수록 공격점수는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비록 신체·언어적 공격과 자기존중감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학업성

적과 자기존중감,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및 공격억제가 공격행동을 차단하는 보호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아니라 Orpinas와 Frankowski의 척도는 공격행동척도로서 타당한 척도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표 5. 공격행동 수준에 따른 각 변인별 추세분석 결과

변인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	F값
학업성적				
직선경향	1	1726.49	1726.49	4.78*
곡선경향	1	2.62	2.62	0.01
자기존중감				
직선경향	1	4.61	4.61	18.97***
곡선경향	1	0.28	0.28	1.17
어머니 애착				
직선경향	1	3.43	3.43	12.14***
곡선경향	1	0.02	0.02	0.09
아버지 애착				
직선경향	1	2.50	2.50	7.22**
곡선경향	1	0.02	0.02	0.06
공격성의 억제				
직선경향	1	0.17	0.17	5.18 *
곡선경향	1	0.004	0.004	0.13

표 6. 중학생들의 성역할 유형에 따른 두가지 공격척도의 하위요인들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구분		양성적 집단	여성적 집단	남성적 집단	미분화 집단	F값	사후검증
Orpinas & Frankowski 척도	신체·언어적 공격	1.14(0.72)	1.19(0.99)	1.46(0.97)	1.47(1.04)	1.68	
	분노	1.07(1.02)	0.90(1.11)	1.95(1.60)	1.44(1.36)	3.77*	3-1, 3-2
Buss & Perry 척도	신체적 공격	2.28(0.53)	2.14(0.45)	2.65(0.67)	2.57(0.59)	6.00***	3-2, 1-4, 2-4
	언어적 공격	2.83(0.59)	2.55(0.50)	2.82(0.71)	2.74(0.74)	1.20	
	분노	2.70(0.63)	2.65(0.52)	3.27(0.98)	2.84(0.62)	4.31**	3-1, 3-2
	적개심	3.09(0.74)	3.08(0.56)	3.26(0.90)	3.06(0.64)	0.42	

공격행동과 관련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후속적 분석으로 중학생들의 공격행동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고 학업성적과 자기존중감,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애에 대한 애착 그리고 공격억제에 대한 추세분석(trend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만약 공격행동수준이 증가할 때 관련변인들의 수준도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직선적 경향을 나타낸다면, 공격척도의 타당성은 부가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추세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모든 변인들이 직선적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공격행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적은 감소하고 자기존중감은 낮아지며, 어머니와 아버지애에 대한 애착은 약화될 뿐 아니라 공격억제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과 자기존중감, 부모에 대한 애착 그리고 공격억제가 청년초기 청소년들의 공격행동을 위한 중요한 보호적 요인임은 물론 Orpinas와 Frankowski의 공격 척도가 어린 청소년들의 공격행동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임을 다시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었다.

표 6은 중학교 학생들의 성역할 유형에 따른 두가지 공격척도의 하위요인들의 점수를 일원변

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6에 의하면, 연구자의 가정과 일치되게 남성적 집단이 두가지 척도의 하위 요인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Orpinas와 Frankowski의 공격척도의 분노요인( $F(3, 167)=3.77, p<.05$ )과 Buss와 Perry의 공격질문지의 신체적 공격요인( $F(3, 167)=6.00, p<.001$ ) 그리고 분노요인( $F(3, 167)=4.31, p<.01$ )이었다.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Orpinas와 Frankowski 척도의 분노요인은 남성적 성역할 집단이 양성적 그리고 여성적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Buss와 Perry 척도의 신체적 공격요인에서는 남성적 집단이 여성적 집단보다 그리고 미분화 집단이 양성적 집단 및 여성적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고 분노요인에서는 남성적 집단이 양성적 집단 및 여성적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또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Orpinas와 Frankowski척도의 신체·언어적 공격요인과 Buss와 Perry 척도의 언어적 공격요인에서도 남성적 집단이 더 높

은 공격점수를 나타내어 전체적인 경향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세가지 성역할 정체감 집단보다 대체적으로 더 공격적이라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성역할 정체감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었다.

## 논 의

이 연구는 6, 7, 8학년 청소년들의 공격행동 빈도를 측정하는 Orpinas와 Frankowski의 공격척도가 우리 한국의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타당한 척도인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원래 대학생용으로 개발된 Buss와 Perry의 공격질문지를 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들과 남녀 대학생들에게 함께 실시하여 두가지 공격척도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공격행동과 관련변인들의 관계도 검토하였다. 개인의 공격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의 증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므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보다 중학생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공격행동척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이 연구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연구결과, Orpinas와 Frankowski의 공격척도는 한국의 중학교 청소년들에게 실시될 수 있는 타당한 공격행동척도로서 청년초기 청소년들의 공격행동 빈도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두 개의 공격척도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공격요인에서만 성차가 발견되었으나 중학생들은 어떤 요인에서도 성차를 나타내지 않아 Orpinas와 Frankowski(2001)의 연구는

물론 Simons 등(2001)의 연구 및 Carlo 등(1999)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비슷한 연령의 청소년들이 연구대상으로 표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년초기 소년들이 소년들과 유사한 빈도의 공격행동을 나타낸다는 결과는 우리 사회의 변화된 성역할 개념이나 교육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다. 그러나 성역할 정체감의 경우에는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체적으로 더 공격적인 경향을 나타내어 성역할 사회화이론과 일치하였다. 일찍이 Hyde(1984)는 개인이 남자인가 혹은 여자인가를 아는 것으로써 그 사람이 얼마나 공격적인가를 예측할 수 없다고 제안하고 개인이 갖는 다른 특성들의 차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Hyde의 주장과 일관성있게, 이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공격행동의 문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양성적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가, 여성적, 남성적 혹은 미분화의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즉 개인의 공격행동은 성차의 문제가 아니라 성역할의 문제라는 것이며 성역할은 Hyde가 주장한, 다른 특성들 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시험성적,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애에 대한 애착 그리고 공격억제는 두가지 공격요인 즉 신체·언어적 공격 및 분노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자기존중감은 분노요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신체·언어적 공격요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존중감 점수를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전체공격점수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물론 공격수준

을 상중하로 나누고 관련변인들에 대한 추세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Dekovic(1999)이나 Jessor 등(1995)과 일치되게 학업성적이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과 함께 공격적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적 요인임이 확인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청년초기 청소년들의 공격행동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격행동 자체에 대한 중재전략과 함께 학업성적과 자기존중감을 증가시키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안정된 애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된, 중재전략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격적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높은 자기존중감을 갖는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Bushman & Baumeister, 1998; Baumeister, 1997),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이나 일탈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공격행동의 빈도와 자기존중감간의 관계가 규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비록 횡단연구이기는 하지만, 중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두가지 공격척도의 6가지 하위요인 중 다섯가지 요인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중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격행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가지 공격척도의 하위요인들에서 중학생과 대학생들간에 나타난 이러한 일관성있는 차이는 연령증가와 함께 개인의 공격행동이 감소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두가지 척도가 타당한 공격척도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학생들과는 상이하게 중학생들의 경우 Orpinas와 Frankowski 척도의 신체·언어적 공격요인과 분노요인이 Buss와 Perry 척도의 언어적 공격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두가지 공격척도의 6가지 하위요인들 중 언어적 공격요인에서 중학생이 대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

은 점수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언어적 공격은 중학생들에게는 중요한 공격요인이 아니라는 추론을 할 수 있었다. Buss와 Perry(1992)도 대학생들은 신체적 공격보다는 언어적 공격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상식적으로도 언어적 공격행동은 중학생들보다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격양식이므로 언어적 공격요인을 독립된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Buss와 Perry의 공격질문지보다는 신체·언어적 공격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은 Orpinas와 Frankowski의 공격척도가 중학생들에게는 더 타당한 공격행동척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에서도 Orpinas와 Frankowski 척도의 두 개의 하위요인들은 타당하게 구분된 공격행동의 요인들이라는 결과( $X^2=0.37$ ,  $p=.54$ ,  $GFI=0.99$ ,  $RMR=0.034$ ,  $NFI=0.99$ )가 제시됨으로써, Orpinas와 Frankowski척도의 타당성은 더욱 분명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연구된 변인들 외에도 개인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공격행동을 중재하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의 공격행동은 기질이나 조망수용능력 혹은 감정이입능력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의 사회인지적 조망에 의하면, 공격성은 결합있는 인지적 처리기술과 연결되기 때문에(Crick & Dodge, 1994),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사용한 타당성 검증도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격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기보고와 부모나 교사, 혹은 친구와 같은 유의미한 타인들의 보고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사평정을 사용한 Orpinas와 Frankowski 처럼, 자기보고형 공격행동척도와 함께 관찰평정

을 실시함으로써 자기보고형 공격행동척도의 타당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공격행동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적은 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Orpinas와 Frankowski의 자기보고형 질문지 공격척도가 어린 청소년들의 공격행동 빈도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문헌

- 곽금주(1992). 공격영화 시청에 따른 공격스크립트의 활성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5권 제1호, 85-98.
- 장휘숙(1997a).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제4권 제1호, 76-87.
- 장휘숙(1997b).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0권 제2호, 123-138.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Vol. 5, No. 1, 82-92.
- Achenbach, T. M. (1991a).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1991b). *Manual for the teacher's report form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Bird, H. R., Canino, G., Phares, V., Gould, M. S., & Rubio-Stipec, M. (1990). Epidemiological comparisons of Puerto Rican and US mainland children: Parent, teacher and self-repor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84-93.
- Allen, J. D., Moore, C., Kupermine, G., & Bell, K.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 1406-1419.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aumeister, R. F. (1997). *Evil: Inside human cruelty and violence*. New York: Freeman.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New York: Basic Books.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3, No. 3, 452-459.
- Carlo, G., Raffaelli, M., Laible, D. J., & Meyer, K. A. (1999). Why are girls less physically aggressive than boys? Personality and parenting mediators of physical aggression. *Sex Roles*, Vol. 40, Nos. 9/10, 711-729.
-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New York: Wiley.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Deluty, R. H. (1979). Children's action tendency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ness, assertiveness and submissiveness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061-1071.
- Dekovic, M. (1999).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roblem behavior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8, No. 6, 667-685.
-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2, 162-170.
- Fergusson, D. M., & Lynskey, M. T. (1996). Adolescent resiliency to family advers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7: 281-292.
- Fling, S., Smith, L., Rodriguez, T., Thornton, D., Atkins, E., & Nixon, K. (1992). Videogames, aggression and self-esteem: A surve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0, 39-45.
- Huesmann, L. R., Eron, L. D., Lefkowitz, M. M., & Walder, L. O. (1984). Stability of aggression over time and gener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120-1134.
- Hyde, J. S. (1984). How large are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A developmental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722-736.
- Jessor, R., Bos, J. van den, Vanderryn, J., Costa, F. M., & Turbin, M. S. (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 923-933.
- Kolbe, L. J., Kann, L., & Collins, J. L. (1993). Overview of the youth risk surveillance system. *Public Health Reports*, 108,

- 2-10.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Lardon, C., & Jason, L. A. (1992). Validating a brief pupil evaluation inventor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 367-376.
- McCord, J. (1992). Problem behaviors. In Feldman, S. S., & Elliott, G. R.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414-430).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pp. 414-430.
- Moffitt, T. E., & Silva, P. A. (1988). Self-reported delinquency, neuropsychological deficit and history of attention deficit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5), 553-569.
- Morrison, E. F. (1993). The measure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in hospitalized psychiatric pati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0*, 51-64.
- Orpinas, P., & Frankowski, F. (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21*, No. 1, 50-67.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579-600.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471-485.
- Resnick, G., & Burt, M. R. (1996). Youth at risk: Definitions and implications for service deliver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6*: 172-18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MJ.
- Ruble, D. N., & Martin, C. L. (1997). Gender development.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New York: Wiley.
- Simons, K. J., Paternite, C. E., & Shore, C. (2001). Quality of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aggression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21*, No. 2, 182-203.
- Tremblay, R. E., Pihl, R. O., Vitaro, F., & Dobkin, P. L. (1994). Predicting early onset of male antisocial behavior from preschool behavio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732-739.

# The Aggression Scale for Adolescents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verify whether the Aggression Scale, consisting of 11 items, developed by Orpinas & Frankowski(2001) can be a self-reported aggressive behavior scale suitable for Korean young adolescents or not. This scale was compared with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for college students developed by Buss and Perry(1992) in two independent samples of middle school students(n=171) and college students(n=252). Correlational analysis, t test, trend analysis and ANOVA revealed the Orpinas & Frankowski Scale is useful tool to measure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Also it was evident that the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and aggression suppression could be the significant protective variables for aggressive behavior of adolescents.

*key words: aggression · self-esteem · academic grades · attachment · gender role identity*